

연중 제 4 주일

기도서 P. 337 A해

제1독서(스 바 2, 3, 12-13)  
제2독서(고린전 1, 26-31)  
복 음(마 태 5, 1-12)

# 숨 정이

발행인 김 함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집 조 성 호  
편 원 한 상 갑

편집실 1천주시서노송동560의6  
천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강 톤



## 진짜 행복한 사람

### 이 종 원 신부

사람이란 행복하게 되길 원하며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것은 만인이 추구하는 바가 될 수 없어도 행복만은 언제 어디서나 갈망하는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길이며 빛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을 통하여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깊숙한 뜻을 이해 못하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방법과 생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빈민이 많아 집니다. 마음속에 가난함이 없고 그대신 물질과 허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두가 마음으로는 부자이며 체벌 사업가이며 자선가이며 봉사자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감정을 상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성 통곡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진실을 잃고 나서는 슬픔도 분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쾌락엔 주림을 느끼고 욕망에 목말라 하지만 정의와 선, 착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깨끗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수중에 집어넣고 꼼짝없이 누르려고 하며, 불의와 타협하고, 이웃을 조소하는 마음은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희생보다는 안일과 자기 과시와 생색만 내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한 육체적으로 아무리 풍요와 만족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 운유하고 오만함이 없는 겸손한 사람, 세상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에게 보탬이 되게 노력하는 사람, 분노를 폭발 시키거나 질투심과 허영에 정열을 소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항상 부족하고 애처롭게 생각하여 하느님 안에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하느님의 정의를 마음속에 가진 사람,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 인간끼리 불화를 피로워하며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 생활 안에 끌어들이 실천해 봅시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찬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것입니다.

(장수 천주교회 주임신부)



## 뱃짱으로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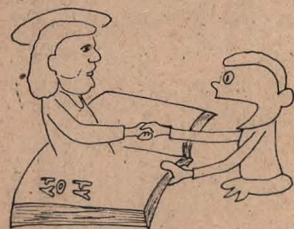
에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오른편의 사나이(右監)」를 일컬어 흔히 「천국을 훔친 사나이」라고 부른다. 왼편의 도둑은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의 말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오른편의 도둑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의탁했다. 참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그에게 그리스도는 사랑의 구원을 약속했다. 그래서, 그가 도둑이었기에, 그를 일러 천국을 「훔친」 사나이로 부른다.

옛그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류 명문 대학을 ‘훔친(?)’,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천국을 훔친 사나이에 대해서는 배울점을 찾는 사람들이, 일류 명문 대학을 훔친 사나이에 대해서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정확히 표현해서, 그 젊은이들에게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게한 정책을 입단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때에나 ‘뱃짱이 두둑한 사람들’이 한몫을 차지한 적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면에서나 그런 공식이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는 그러한 공식은 얼굴도 내밀 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 나라의 문교정책이 잘못되어 엉터리 결론을 낳게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지 용납될 수 없다. 문교정책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위 세시대에는 책임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 백년 대계인 문교정책에 시행착오는 없어야 한다.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권장했던 노풍 피해로 허리띠를 졸라맨 적이 바로 옛그제였다. 바르게 자라야 할 젊은이들에게 벌써부터 투기를 가르쳐서 어찌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역사를 뱃짱으로 창조해 나갈 작정인가? 아니다. 결코 그러서는 안된다.

## 숨 정이 산책



주님의 대화는...

◆ 서품(叙品) 축하합니다 ◆

10여 성상, 각고 끝에 형설의 공 이뤄 새 사제와 부제님들이 2월 2일 드디어 주님의 제단에 오른다. 중앙본당 출신의 서광석(요셉), 유영도(베네딕토) 그리고 서울해방촌 본당의 박인호(베드로)세 분이 영광의 사제품(司祭品)을 받는 새 신부님들이요, 중앙의 박찬길(미카엘)과 복자성당의 안철문(이나시오) 두 분이 새 부제(副祭)님으로 서품된다.

메마른 대지 위에 쏟아지는 빗방울 처럼 참으로 고향고 반갑기 그지없는 축복, 교구의 새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 하시던 주님 말씀 같이 격증하는 인구속에 마냥 귀하고 부족하기만한 성소(聖召)이기에 목마른 우리네에 선사된 오늘의 서품이야말로 그대 정녕 은혜롭고 경사스런 대축제라 이를 것이다.

정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던가, 전 신자들의 간구와 성원속에 애타도록 조아리며 바라던 사제요 예언자, 현신의 종, 그들이기에 오늘의 축성(祝聖)과 탄생울 우린 온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부디 다하는 그날까지 님 위해 죽고, 남 위해 살며, 교회 위해 몸바칠 사자(使者)들, 가르코 대법한 새 신부님들과 부제님들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가호가 있으시길 빌어마지 않는다.

◆ 서품식 ◆

일시 : 1981년 2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주교좌(중앙) 성당

주례 : 교구장 김재덕 주교

※ 교우들의 많은 참석과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 대신(大神)학교 합격

사제 양성의 요람, 광주 대건 신학 대학은 지난 26일 81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문교부 인가로, 금년부터 90명으로 늘어난 정원 모집에 비해 약 2:1의 경쟁율을 보인 금번 응시에 본 교구에서는 15명이 전형에 임해 5명이 탈락하고 10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어려운 추천 과정과 좁고도 험한 판문을 뚫고 영예의 사제지망 신학대학 입학 허가라는 합격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 |             |                  |
|-------------|------------------|
| 김진철(남원 본당), | 한병현(서학동),        |
| 김희태(중앙),    | 박대룡(남원),         |
| 이명재(숲정이),   | 최태진(둔율동),        |
| 김경환(노송동),   | 박중충(팔마),         |
| 정인웅(파티마),   | 정태준(파티마), 이상 10명 |

합격의 희소식과 함께 고귀한 성직 수련의 길에 들어 서게 된 장한 새 신학생들에게 충심으로 기쁜 축하와 성원의 박수를 보내 마지않는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들과 신부님, 제위 어른들께도 아울러 깊은 축하 인사와 감사를 드린다.

「들을 귀」

(가톨릭 안내란) 신설에 붙여

우리의 모습에서 귀 없음을 상상해 보자. 부조화, 불균형, 정말로 우스꽝스러울 지다. 신체적인 면에서 만일 까? 임금님의 잔치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온갖 지체 부자유자를 모았다. 잔치를 배설한 후, 누가 제일 불쌍한가를 시험하고픈 왕은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호령하였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도망치는데 들을 귀 없는 자만이 명청하게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얼 가르쳐 줄까?

들을 수 있음은 곧 살아있다는 징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알아 들어라”(마태오 13장 9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60의 경륜을 ‘이순’(耳順)이라 하신 우리네 성현의 말씀 또한 이 범주에 속해 있지 않을까?

하여, 듣고픈 자에게 외치겠다. 기쁘게 받아드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소리로, 귀를 막은 자에게는 고향소리로 비록 단편이라서 제대로 잘 비어주거나 귀어주지는 못할 지언정, 소리만은 가다듬어 가톨릭 안내와 교리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듣고, 새기고, 더 넓혀서 모르는 자에게 더 크게 들려주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1월중 꾸르실료 교육을 마치고

정말 빠근하고 벅찼던 한 달이었다. 연 4주간을 계속 강행군 한, 지도임원들 그리고 뒤에서 남모르게 그 고된 뒷바라지를 치루느라 홍역을 치른 설타 식구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은총안의 생활, 참 크리스찬 생활을 위한 꾸르실료의 성공과 오늘의 평신도 사도 양성을 위해 물심으로 기도와 성원을 베풀어준, 수 많은 교형 자매들께도 깊은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드린다.

그간 여러분의 협조로 교구에서는 남성 2회 78명, 여성 2회 97명 모두 총175명의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하는 보람과 기쁨을 안기게 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우리 교구에는 약 1,000여명의 꾸르실료 형제, 자매가 생기게 된 것이다. 주님의 더 큰 영광과 찬미를 위한 우리들의 이 작은 노력의 결실을 주께서 이리도 크게 축복해 주셨음에 재삼 고개 숙일 뿐이다.

다음 꾸르실료는 3월 16~19일(여성)과 26~29일(남성)에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한다. 특별히 적임자의 신중한 선정과 사전 신청으로 교육의 효과를 더 잘 거둘 수 있도록 신부님과 회장님들의 개별하신 관심 있으시기 바란다.

(김영신 신부)

□ 교구소식

교구 평협 정기 총회

지난 24일 사도회장단 연수회에 이어 교구 평협은 총재 주교님을 모신 가운데 조성호 회장의 사회로 총회를 개최했다.

34분의 본당 회장님들과 단체 대표들이 모여 갖은 본 회의에서는 예산, 결산 처리와 우선 81년도 이웃 전교의 해를 맞아 교구에서 계획한 각종 지침을 검토하고 그 추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고, 무엇보다도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강화책과 기금마련 대책 등을 진지하게 토의, 새로운 관심과 활기를 가득 들뜨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평신도 사명을 강조하신 교구장님의 열띤 말씀을 반참고 특별히 금년에는 더욱 잦은 방문과 활동으로 공동목표 달성에 앞장서 지역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오후 늦게 해산했다.

도내 신자 공무원 한 자리에

폭설과 빙판으로 대지가 꽁꽁 얼어붙었던 1월 25일 아침 10시, 중앙성당 강당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간직하고 빛내 보려는 충직한 공복(公僕)들의 뜻 깊은 대 모임이 있었다.

지난 해 거의 자치적으로 모여 결성한 도(道)「로사리오」회(회장 채수현)가 주동이 되어 같은 신앙과 적(籍)을 가진 전북 전도의 전 신자 내무 공무원들 한 자리에 모아 신앙의 재신식과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선교사명을 다지교자 한 것이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미처 제대로 파악 전달되지 못한 연락 부족등으로 각 군(郡)에서 약 90여명이 참석, 처음 시도했던 회합으로서는 일단 알차고 값진 모임은 이뤘으나 곳곳에 산재한 전 일선 공무원들이 모두 대면, 동석치 못한 아쉬움이 컸다. 다음 기회엔 수 백의 우리 신자 공무원들이 꼭 함께 주님안에 성대한 집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이번 첫 모임은 김환철 부주교님 집전의 미사로 시작, 전도(前途)결속과 회(會)의 성공을 축원하고, 이어 각 지역 책임자 선정과 정확한 명단 파악 그리고 차기 모임과 유대 협력 방안을 숙의한 후 오후 3시, 4월의 재 모임을 약속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아무튼 교구 사상 획기적이지요, 가히 수법이 될 자치 모임을 애써 주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신앙과 공동체의 길을 모색해 준 「로사리오」 회원들의 노고와 열의 그리고 그 타는 신심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가득한 축복을 빌어 드린다. 그리고 도내 모든 신자 공무원들과 그 가정에 주님 꼭 함께 하시어 부디 내일엔 더욱 우리의 사회를 일신하는 훌륭한 선도자적 모임체로 크게 발전해 주기를 거듭 바랄 뿐이다.

요심이(391) 김병오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주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덕배)·이 마리아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요(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렘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광고의 기획은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광고 효과의 전달에 있습니다

★ 인간의 얼굴이 제각기 다르듯이 생활의식도 다릅니다  
저희는 만드는 입장과, 보는 입장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보는 입장과 만드는 입장에서
1. 신장이전 확장 개업시의 선전
  2. 기념품·스티카 담배품·성냥·젓털이
  3. 우내·옥외·차내의 광고
  4. 도서출판(카다루 팜푸렛) 고급 특수인쇄

—미래를 창조하는—

현 대 기 획

전주시 풍남동 1가 동문사거리  
경향신문지사내 직통 ② 4804  
사무실 ② 8187  
(남·녀 사원모집 중)

「 토 용 탕 」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 토용을 양식하고자 하는 분에게 「안내서」를 드리겠습니다.  
무공해(無公害) 식품을 생산하는 데, 세계 각국에서도 지령이 농법(農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바랍니다.

—연락처—

군산 토용센터(환일은행 뒤)  
전화 ③ 1636

전주 전동 대건 다방  
(대전신용조합 지하)

전화 ③ 9740

유 석 증(스페과노)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제서품 및 부제품...2월 2일(월) 오전 11시, 중항성당에서 신자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공소회장 연수회...2일(월) 오후 2시~3일(화), 가톨릭 센터에서  
※ 회비는 사도회장단시와 같습니다
  3. 중·고 동계 목상회 무사히 마칩(1월 24~25일)  
수고해 주신 장사 신부님,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2월 2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중·고 연합회 정기총회 연기, 2월 22일(일)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성당을 위한 협금...합월 익명(2만원)

####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	정	협
보좌	신부	유	중	환
보좌	신부	박	인	홍
사도	회장	김	병	수

1. 사도회 상임위원회: 2월 7일(토) 오후 7시  
사도회 월례회: 2월 11일(수) 오전 11시 강당  
사도회 고문·감사·회장·구역장·반장·신심단체장·부회장 전원 참석 바랍니다(웃놀이 있음)
  2. 방지거 삼회: 오후 2시(강당)
  3. 성심부녀회: 2월 6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어머니 성가회: 2월 12일(목) 10시 30분
  5. 주일학교 개학: 2월 7일(토) 오후 3시
  6. 구정합동 위령미사 시간: 5일 오전 6시, 오후 7시  
(예물접수는 4일까지 사무실에서 합니다)
  7. 예비자 교리: 예비자 전체모임 2월 1일(일) 공식미사 주 양당
  8. 상지회 임원개편: 회장-이강호, 부회장-김낙준·오중원, 총무-양창수, 재무-성달용  
감사현금-배평동 이요설(1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04,625원

####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각 분과위원장님과 차장님 모임)
  2. 반장님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구정 합동미사: 2월 5일 오전 10시  
(선영을 위하여 정성껏 봉헌합니다)
  4. 예비신자 교리: 오늘부터 예비신자 교리 시작합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환 ② 김한용, 신자들의 기도-김나섬
- 지난주 교무금: 144,800원

####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신협미사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 2월 4일까지 접수
  3. 구정합동 미사시간 안내  
2월 5일(목) 아침 7시·오후 7시미사
  4. 주일학교 후원회: 2월 3일
  5. 누알다 부녀회: 2월 7일
  6. 다음주 전례담당: 해설-홍성조  
독서-박병열·이용신, 기도-이기호·허옥순
- 지난주 봉헌금: 288,780원

####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	나	정	원
보좌	신부	박	영	준	근
사도	회장	박	영	준	근

1. 신동조합 정기총회: 오늘 오후 1시 30분
  2. 구정합동 위령미사 봉헌: 먼저 가진 신영들을 위해 빠짐없이 미사에물 봉헌합니다
  3.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4시까지
  4.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5.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4시까지
  6.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오늘부터 본회의는 매월 첫주로 변경합니다
  7.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18,280원

####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예비자 입교식: 2월 8일  
배가운동과 이웃 전교에 앞장섭니다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축! 환영 유명도 신부님: 환영식-2월 8일
  4. 초 축성: 2월 2일, 많은 봉헌 바랍니다
  5. 구정합동 위령미사: 2월 5일 저녁 7시
  6. 축! 결혼: 2월 2일 오전 11시  
신랑-강순형, 신부-전승희(아가다)
- 지난주 봉헌금: 320,500원

####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중	택
보좌	신부	김	희	남
사도	회장	조	성	호

- ※ 환영! 김희남 신부님(1월 30일 부임)
1. 부제품: 안철문(이냐시오), 2일 오전 11시 중항성당
  2. 구정합동 위령미사: 2월 5일 오전 6시, 저녁 7시반
  3. 첫 협례 7: 2월 7일 저녁 7시 30분
  4.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사도회 임원연수회: 9~10일  
유기순·유덕열·박상기·장기연·이충원·이기배
  6. 아가씨 L.M.: 매주(금)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09,720원 구라주일협금: 57,570원

####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박	병	준
사도	회장	이	종	두

1.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9시미사 후
  3. 80년도 미납된 교무금 책임완수 하시고 81년도 교무금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4. 인사이동  
신임 보좌신부-박병준 신부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사회-박종구, 독서 ① 박순기 ② 이신홍  
공식미사: 사회-서정옥, 독서 ① 이영래 ② 박도식  
저녁미사: 사회-김윤주, 독서 ① 김동수 ② 경양수
  6. 아나운서 모집: 주일미사 해설과 미사진행 담당자  
① 아동부-아동미사, ② 중·고등부-학생미사,  
③ 청년미사-주일 저녁미사, ④ 일반부-첫째·공식·저녁미사 ※ 각부마다 남녀 약간명, 이력서 필  
요없고 재치와 고운 목소리 지닌자  
※ 월봉은 없고 봉사정신이 강함이
  7. 협금봉투 사용: 2월 8일부터
  8. 구정 합동미사: 아침미사만 있습니다  
※ 구정합동 미사에물은 사무실에 4일까지 접수바람
- ◎ 유치원(박도미니카) 수녀님 어머니성가대 교문 추대
- 지난주 봉헌금: 418,930원

####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예비자 환영 전례식: 오늘 10시미사에
  3. 초 축성: 내일 아침미사 후  
오늘 저녁미사때까지 사무실·수녀원에 가져오세요
  4. 미사시간 변경: 내일부터  
아침미사 6시 30분, 저녁 7시 30분
  5. 구정 합동미사: 2월 5일 아침 7시  
선영을 위해 가정마다 빠짐없이 미사봉헌 합니다
  6. 성모기회: 7일(토)
- 지난주 봉헌금: 116,440원 어린이협금: 3,675원  
교무금: 267,500원